■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亞 제1의 명품 문화도시 조성”

구도심 활성화·주거환경 개선 ‘종갓집 재건’

공약실천위 통해 공약 이행 여부 검증 받을 것

“3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광주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유태명(66) 동구청장은 “지난 8년간 쌓아온 구민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속에 다시 한번 동구 발전을 이끌게 됐다”며 “‘동구 재건’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라는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항상 다짐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동구는 구 전남도청 이전과 도심 다핵화로 인한 인구유출, 중심 상권 쇠퇴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역시 4년 전보다 1만 여명이 줄어들어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적은 10만 5000여명에 불과하다.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유 청장의 과제가 됐다.

유 청장은 ▲문화중심도시 ▲상업도시 ▲녹색도시 ▲교육·체육도시 ▲건강복지도시 등 5개 분야에 대한 동구의 미래를 바꿀 32가지 약속을 내세웠다. 국립 광주도서관 유치 건립·충장축제 역사 문화관 건립·문화거점 재생사업 추진·의재로 문화벨트 조성·동구사랑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동구에 걸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디지털 전자의 거리 육성 등 중심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산동 뉴타운·월남동 보금자리 주택단지·선교동 녹색 주거타운·너릿재 생태탐방로 조성·지산유원지 주변도 개발할 작정이다.

아울러 인재육성장학기금 확충과 자율형 고등학교 확대, 초·중·고 명문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개발 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산악자전거 체험코스 개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등으로 교육·체육도시의 비전도 제시했다.

유 청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동구청 모든 직원들이 분위기를 쇄신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청장은 공약 이행 여부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을 계획이다. 당선 후에는 주택관리팀 등을 통폐합하고, 출산다문화팀·새주소팀·공원관리팀·교통징수팀 등 인구 증가에 필요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5급 사무관 이상 직급은 90% 교체할 계획”이라며 “퇴임이 1~2년 정도 남은 공직자들은 주민 곁에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민중심 생활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광주 5개 자치구 의장단 선출

〈홍기월 동구의장〉〈오광교 서구의장〉〈권용일 남구의장〉〈고재을 북구의장〉〈이준열 광산구의장〉

광주지역 기초의회가 7일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풀뿌리’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소집,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을 했으며, 5개 기초의회 의장직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싹쓸이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3선인 홍기월 의원, 부의장에 조종진 의원을 선출했다.

서구의회는 의장에 3선인 오광교 의원을, 부의장에는 초선인 김옥수 의원을 내세웠으며, 북구의회는 단독출마한 5선인 고재을 의원을 의장으로, 김동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의원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던 남구의회도 이날 재선인 권용일 의원과 남광인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광산구의회는 3선인 이준열 의원을 의장으로, 민주노동당 국강현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포게이트, 여권 내 권력투쟁”

박지원 “저수지 둑에 쥐구멍 뚫리는 상황”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조영택(왼쪽부터), 우제창, 신건, 박선숙, 이윤석 의원 등 위원들이 7일 자료요구를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월권 의혹(영포게이트)과 관련,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포게이트는 여권 내 권력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뒤,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여권 일각에서) 이를 막자는 것”이라며 “청와대 내부나 한나라당 쪽에서 박 차장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제보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전 정권에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을 정리하고 자기 사람을 논공행상으로 심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권력투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권력투쟁이 중단돼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뚫리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서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은 입각해서 국회의원이나 출마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산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자 잔인한 발상으로, 우리 민족, 형제에게 당장 지원해야 한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값이 너무 비싸서…

방위사업청, 휘장류 도금 두께 줄여

방위사업청이 치솟는 금값으로 제작단가가 올라가는 군 휘장류 제작방식을 개선했다.

방사청은 7일 군에서 사용하는 병과 휘장, 육군 휘장, 무궁화 금장, 항공휘장 등 휘장류의 제작방식을 개선해 제작단가를 40%가량(1억6000만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휘장류 제작방식을 개선한 것은 현재 온스당 1200달러를 호가하는 금값 때문이다.

휘장류는 표면 도금 재료로 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게 되면 계획된 제작예산이 초과해 적기에 납품이 어렵게 된다.

방사청은 매년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0만여개의 휘장류를 제작해 육·해·공군에 보급하고 있는데 금값 상승으로 제작단가도 높아졌다.

이에 방사청은 최근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열고 휘장류의 금도금 두께를 기존 2㎛에서 계급장 도금 두께와 같은 0.1㎛로 낮추고 표면 처리방법도 열경화성 강화수지 코팅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한, 靑·정부에 ‘민간인 사찰’ 시정 건의

한나라당은 7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 측에 시정조치를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건은 ‘영포(영일·포항)회 사건’이 아니라 ‘이인규 사건’”이라며 “민간인 사찰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심멤버였고, 강원 평창이 고향으로 이광재 전 의원을 열심히 도와온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총리로서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왜 이런 일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고속단정 전복 사고 공군 대위 사망

지난 3일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가 7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00시 50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이모 대위가 사망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군인가족과 민간인 15명 중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 대위와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다.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후배인 특수부대장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군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이모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모 대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